

광주·전남 기업 30곳 '지역 우수기업' 선정

중기부 올 전국 181곳 선정 5년간 1000개 강소기업 육성 연구개발·정책자금·해외 진출 등 지원...일자리 창출 기대

광주·전남지역 30개 기업이 '지역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됐다. 높은 성장기 기대되는 기업들인데다,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지역 내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비수도권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혁신성장을 견인할 '지역우수기업' 181개사를 선정하고 기술사업화 및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역우수기업'이란 비수도권 지역의 중소기업 중 향후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을 뜻한다. 이들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은 122억원이고, R&D투자액은 6억

5500만원이다. 매출과 투자 비중 등이 높은 기업들로, 중기부로부터 단계적, 맞춤형 일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지역의 경우 우수기업 선정 기준을 최근 3년 평균 매출 50억~400억을 달성하고 같은 기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 1%, 최근 5년간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5%이상인 기업들을 선정했다.

이날 선정된 광주지역 기업들은 그린테크(주), 이디에스(주), 인셀(주), ㈜골드벨, ㈜라도, ㈜세일컴, ㈜스케이틀론, ㈜조인트리, ㈜씨엔티, ㈜씨엔텍, ㈜아이코디, ㈜유오케이, ㈜유진테크노, ㈜전일, ㈜티디엠 등 15개사다.

전남의 경우 최근 3년 평균 매출 50억~400억원, 같은 기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1%이상으로 광주와 같지만 매출액

증가율이 아닌 상시근로자 중 정규직 비중 70% 이상인 기업을 선정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선정된 전남지역 우수기업은 원광전력(주), ㈜SKD HI-TEC, ㈜기성, ㈜네모이엔지, ㈜대한엔지니어링, ㈜비온사이노베이터, ㈜새해정보시스템, ㈜지알컴, ㈜신호엔지니어링, ㈜에코레이, ㈜유니텍솔루션, ㈜유에너지, ㈜죽암엔씨, ㈜정담은, ㈜코인즈 등 15개사다.

올해 이들 기업에게는 중기부와 지자체가 6대 4로 부담해 총 134억원을 지원한다. 기업당 사업과 지원비 5000만원을 준다. 이외 수출실적 100만달러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 동영상 제작, 해외전시회 참가 등 수출성공패키지 사업비를 기업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오는 2019년에는 상용화 R&D 연 3억원(2년)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우대, 대출한도 증액, 자체적인 시장 개척단, 해외

바이어 초청 참가지원 등도 지원한다. 기업은행에서는 선정된 기업에 금리를 우대(최대 1%포인트)하는 등 정부, 지자체, 민간이 함께 협력해 스크럼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중기부와 14개 광역지자체는 지역 우수기업을 연간 200개씩 향후 5년간 1000개를 선정, 약 60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우수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광역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의 협력모델로서의 의미가 있다"며 "중기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 우수기업이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70.58 (+16.82)	↑ 금리(국고채 3년) 2.22 (+0.02)
↑ 코스닥 887.91 (+10.75)	↓ 환율(USD) 1069.00 (-1.70)



효성은 도쿄에서 열리는 부직포 전시회, ANEX에 전시부스를 내고 스판덱스 브랜드 '크레오라(Creora®)' 홍보활동을 펼친다. (효성 제공)

효성, 기저귀용 스판덱스 세계시장 공략

日 부직포 전시회 참가...700여 위생용품 메이커 참여

효성이 세계 최대 규모의 부직포 전시회를 통한 스판덱스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효성은 8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부직포 전시회인 'ANEX 2018'에 참가, 자사 스판덱스 브랜드인 '크레오라(Creora®)'의 '컴포트'(comfort)와 '파워핏'(Power Fit)에 대한 집중 홍보 활동을 펼친다.

컴포트는 착용감이 부드럽고 신축성이 뛰어나며 파워핏은 강도가 높은 게 특징으로 두 제품 모두 기저귀 제조에 적합하다.

ANEX(아넥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부직포 전시회로 기저귀나 위생용품 제

조 기업들의 제품과 기술력을 선보여 해당 산업분야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국제박람회다. 전 세계 700여 위생용품 메이커가 참가하고 방문객도 3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효성은 박람회 기간 전시부스 안에 고객상담 전용장소를 마련해 전 세계 기저귀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효성 조현준 회장은 "아넥스를 통해 좀 더 많은 고객에게 크레오라를 알리고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관련 산업분야에서 크레오라 브랜드의 입지를 다지겠다"고 말했다.

/김지용 기자 dok2000@kwangju.co.kr

'경협주'에 몰리는 개미

철강·토목·철도 거래 급증 추가상승률 전체 2배 넘어

광주·전남 주식 투자자들의 남부 경제협력력(경협) 관련 업종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4월부터 '경협주'로 평가 받는 업종에 대한 거래가 2개월 연속 급증한 것으로 집계되면서다. 경협주 추가 상승률도 시장 전체의 2배를 넘어섰다.

8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 투자자들의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주식 거래량은 6억 794만주로, 전월(6억9296만주)에 견줘 1353만주(1.95%) 감소했고 거래대금은 5조5376억원에서 5조2626억원으로 2750억원(4.97%) 줄었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는 남부, 북미정상회담 기대감으로 토목·건축·철강 등 인프라 관련 기업을 포함한 '경협주'로 평가받는 업종에 대한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간관 생산기업인 동양철관의 경우 남부은 물론 러시아까지 이어지는 '남·북·러 가스관 사업' 테마주로 얽히며 지난 4월부터 광주·전남 유가증권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코스닥 시장도 대북 송전업체로 경협주로 꼽히는 이화전기는 3월 3603만주, 4월 6818만주, 5월 5696만주까지 거래되면서 지역 투자자들 간 거래종목이 가장 많은 종목에 올랐다. 철도신호제어시스템 사업분야의 코스닥기업인 대이티아이도 지난달 4629만주까지 거래되며 거래량 2위에 포함됐다.

/김지용 기자 dok2000@



전은 지난 6일 미얀마 네피도에서 미얀마 전력에너지부와 "미얀마 배전망 건설 건설 및 설계기준제정 사업"을 계약 체결했다. 계약식 후 쏘 윈 마웅(왼쪽) ESE 시장과 김갑순 한국전력공사 아주사업처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전제공)

한전, 534만달러 미얀마 배전망 건설 수주

유럽 국제건설시장 경쟁 뚫어...국내 기자재 제조사 진출 발판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얀마 네피도에서 미얀마 전력에너지부(MOEE)와 534만달러 규모의 '미얀마 배전망 건설 컨설팅 및 설계기준제정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김갑순 한전 아주사업처장과 우 윈 카잉(U Win Khaing) 미얀마 전력에너지부장관 등 현지 정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추진될 사업의 성공적 수행 의지를 다졌다.

이번 사업은 미얀마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단위 전기공급사업에 대한 입찰 평가지원 및 시공감리 수행과, 미얀마의 배전 설

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전기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한전은 지난 2001년부터 '미얀마 송변전분야 기술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등 미얀마에서 5건의 컨설팅을 수행했으며, 미얀마 전력에너지부와도 후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김갑순 한전 아주사업처장은 "이번 계약 체결로 한전의 송배전 기술력을 미얀마에 전수하게 되며, 이를 통해 설계기준과 기자재 규격이 제정되면 미얀마의 국가표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국내 기자재 제조사들의 미얀마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은행 하반기 60명 신규채용

전북은행은 50명...전체 70% 지역인재 채용

JB금융지주(회장 김한)는 2018년도 하반기 신입행원을 110명 채용키로 했다.

JB금융그룹은 청년들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디지털뱅크 강화를 위해 자회사인 광주은행이 60명, 전북은행이 50명, 함께 110명의 신입행원을 채용한다. 이는 지난해 광주은행이 53명, 전북은행이 38명의 신입행원을 채용했던 것에 비해 전체적으로 20% 이상 늘린 것이다.

채용절차는 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최대한 준

수해 신입행원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며 채용시기도 은행연합회 모범규준이 확정되면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지방은행의 특성상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지역인재들을 위해 전체 채용인원의 70% 이상을 지역(전남·북도)에 할당해 선발하고, 지역인재들이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에 의거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9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신거리 토지:8,630㎡(2610,56평) 건물:6299,19㎡(1905,50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100억** 화순전대병원인근에 위치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분양

제주 조천읍 스위스마을(타운하우스) 총 66세대 중 3단지4단지 31세대 분양 중 (1단지 2단지 분양완료) 타입 : 36평형, 45평형 2018.7월 입주예정 신개념 수익형 타운하우스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